

 안산상공회의소 2026년 6월 26일(금) 배포 시 보도 요망	報道資料	담당부서	회 원 조 사 팀
		담 당 자	팀 장 윤 경 태 대 리 이 채 윤
		전화번호	031-410-3030(내선247)

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ansancci.korcham.net) ▷ 새소식 ▷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.

2026년 안산기업 하계휴무 “59.6%” 실시

- 평균 휴무일수 ‘4일’ (주말 제외), 휴무시기는 ‘8월 첫째 주’가 가장 많아
- 안산지역 기업 하계휴무 상여금 지급 25.4%, 현물 지급 3.5%
- 미국-이란 군사 충돌 여파 지속...안산기업 80.7% ‘여전히 영향 있다’

안산상공회의소는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산지역 소재 기업 114개사를 대상으로 「2026년 안산지역 기업 하계휴무 계획 조사」를 실시했다.

조사 결과, 안산지역 기업의 59.6%가 하계휴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, 40.4%는 ‘납기 준수’ 등의 이유로 하계휴무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.

하계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휴무 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평균 4일로 나타났다. 휴무 시기는 ‘8월 첫째 주’가 65.9%로 가장 많았으며, 휴무 형태는 ‘전 직원 일괄 휴무’가 64.7%로 ‘일정 기간 내 분산 휴무(35.3%)’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

하계휴무 운영 방식으로는 ‘연·월차 사용’이 52.9%로 가장 많았고, 이어 ‘특별 유급 휴가 지급(33.8%)’, ‘연·월차와 특별유급 휴가 병행(11.8%)’, ‘기타(1.5%)’ 순으로 조사됐다. 또한, 하계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81.4%는 ‘주요 거래처의 휴무 일정을 고려’한다고 응답했다.

하계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은 25.4%로 전년(29.7%) 대비 4.3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 ‘기본급 대비 50% 미만’을 지급하는 기업이 50.0%로 가장 많았으며,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우, ‘일정 금액(평균 지급액 65만원)’ 지급하는 기업이 66.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.

한편, 현시점 기준 「미국-이란 군사 충돌」이 안산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, 응답 기업의 80.7%는 기업경영에 ‘영향이 있다’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군사 충돌 발생 직후 대비 6.0%p 감소한 수준이다.

또한, 현시점 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 영향 전망을 조사한 결과, 매출의 경우 응답 기업의 78.3%가 '매출 감소'를 예상했으며, 이어 '영향 없음(19.6%)', '오히려 매출 증가 예상(2.2%)' 순으로 나타났다. 영업이익의 경우 '감소'를 예상한 기업이 85.9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, 이어 '영향 없음(11.9%)', '오히려 영업이익 증가(2.2%)' 순으로 조사됐다.

한편, 안산상공회의소는 안산지역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동향, 경기전망지수(BSI) 등 각종 실태를 조사·발표하고 있다. 자세한 문의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회원조사팀(T. 031-410-3030 / 내선 247)으로 문의하면 된다.